

본문: 창세기 1 장 26-28 절, 누가복음 3 장 21-22 절

제목: 덕분에 사는 인생

1.—

한국에 경칩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내일이 경칩인데 경칩이 되면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나올 정도로 날이 따뜻해진다고 합니다. 목사님도 어린 시절에 2 월 말이나 3 월초가 되면 산 속의 꿀짜기로 도롱뇽 알을 모으러 다녔어요. 산 위의 눈이 녹아 물이 흐르고, 흐르는 물에 놀란 개구리나 도롱뇽 같은 생명체들은 겨울잠에서 깨어납니다. 물론 미네소타는 한국보다 더 춥긴 하지만 이제 봄이 오는 것을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너무 빨리 봄이 오는 건 아닌가 하는 염려가 생깁니다. 따뜻한 겨울이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따뜻한 겨울은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지구의 리듬이 바뀌어버린 것이죠. 이것은 많은 식물들과 동물들에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4 월 말에 피어야 할 사과 꽃이 3 월 말에 피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꽃이 빨리 피게 되면 꽃들을 옮겨다니면서 pollination 을 해내는 꿀벌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꿀벌은 그 리듬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죠. 베르베르 베르나르 (Bernard Werber)의 <꿀벌의 예언>이라는 소설에 한 사람이 옛날 중세에 쓰여진 한 예언의 책을 찾아 모험을 시작합니다. 주인공은 미래로 가서 미래의 자신과 만나게 되는데, 그 미래의 세계에서 꿀벌의 멸종으로 인류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봅니다. 꿀벌의 멸종은 상당히 심각한 일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한 번 상상해 보세요. 꿀벌이 사라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꿀벌은 꽃들을 돌아다니면서 폴리네이션(pollination)이라는 것을 도와줍니다. 꽃 속에 있는 가루가 남자라면 그 가루를 꽃 아래 쪽에 있는 여자 역할을 하는 부분에다 묻혀주는 것을 벌이 도와주는 겁니다. 이렇게 꽃의 수술과 암술이 만나면 폴리네이션이 완성되고 꽃은 열매로 변하게 됩니다. 벌이 이 폴리네이션을 도와줘야 하는데 벌이 사라진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과일과 곡식들을 먹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꿀벌이 사라진다면 곡식과 열매들이 줄어들게 되고 인류는 심각한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꿀벌들이 점점 지구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꿀벌들이 먹는 야생 꽃밭들이 개발로 사라지고 있어요. 또한 1960 년대 이후 농약을 사용하면서 꿀벌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대요. 캘리포니아에서는 아몬드 열매를 얻기 위해 수 억마리의 꿀벌들을 다른 곳에서 잡아와서 아몬드 꽃이 필 때 풀어 놓대요. 꿀벌들은 아몬드 열매를 만들고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꿀벌 뿐만 아닙니다. 지금 지구는 기후 위기를 포함한 생태계의 큰 위기를 겪고 있어요.

여러 사람이 나무 가지에 올라가서 톱질을 합니다. 자기들이 앉아 있는 나무에 톱질을 하는데 여러 사람이 나무 가지에 앉아 있다보니 나무 가지가 두둑 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은 서로 놀란 얼굴을 쳐다보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계속 톱질을 합니다. 그 나무 가지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지구가 병들고 곳곳에서 기후의 위기 때문에 신음을 하는데도 사람들은 삶의 태도를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서로 놀란 얼굴을 쳐다본 후 그대로 똑같이 살아갑니다. 뭔가가 잘 못되어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2.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고 신앙이 깊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믿음이 진짜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알아차리는 사람인 거죠. 어린이 여러분이 착한 어린이가 되려면 부모님의 마음과 뜻을 잘 알고 순종하면 됩니다. 부모님 마음을 이해 못하고 부모님의 뜻을 잘 알아차리지 않고 자기 맘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불효자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그 분의 뜻을 알아차리고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세 분처럼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입니다. 세 인격(persons)이 함께 존재하는 하나님을 Trinity 라고 부릅니다. 세 분 모두 하나님이신데 다른 퍼슨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이것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이 세분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존재방식을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 해줍니다. 트리니티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바로 사랑과 기쁨 속에서 만들어지는 연합입니다. (그림설명-화합과 통합)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셔서 예수님 위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라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트리니티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여 하나가 되신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과 기쁨 속에서 하나가 되셨고, 서로 섬기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고 기쁨이 되어주는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를 선물로 주니까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를 선물로 내어주는 삶을 저는 덕분에 사는 삶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깊이 연결되어 사랑과 섬김을 주고 받는 이런 삶은 덕분에 사는 삶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존재방식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사람들의 존재방식이기 때문이죠.

3.

삼위일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Evolutionist 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구는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창세기 1 장 26 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라는 복수형태의 주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 분들이 자기의 이미지대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이미지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자신들이 존재하는 방식대로 사람이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사람을 관계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사랑과 기쁨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존재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지만 우리의 존재가 관계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연결되고 사랑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도 관계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적이란 말이 의미하는 것은 덕분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덕분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은 서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어느 하나가 빠진다면 심각한 위기가 생깁니다. 아까 꿀벌이 없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 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그분의 이미지를 드러내 보이고 싶어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피조물의 대표로서 나서주기를 바라신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과 하늘을 만들고 그 위에 식물들을 만드시고 물고기와

동물들을 만드신 후 인간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니가 피조물의 대표로 모든 피조물들을 잘 보살피고 관리해 주길 바란다.”라구요. 이 말은 사람이 다른 피조물보다 더 낫다는 말이 아니라 대표성을 갖고 있을 뿐이라는 말입니다. 이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인간이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만드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더불어 잘 살아가라고 만드신 것이지요.

4.

우리는 덕분에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지구 위의 모든 생명들은 연결되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뿐만 아니라 사람과 자연과도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수 없이 말해 왔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와 우리 별 지구위의 인간 외의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지구가 병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지구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구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이 자연 만물 가운데 가 있기 때문에 자연을 돌보고 보살피는 것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는다고 말로만 하실 건가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그 믿음에 대한 행동이 있어야하고 열매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 맘대로 다룰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세상에 하찮은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소중합니다. 풀 한포기, 벌레 한 마리, 쌀 한 톨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지구상의 모든 자원 뿐만 아니라 생명체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보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덕분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그들의 고마움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함부로 대하며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에콜로지라는 단어는 그 뿌리가 그리스 말 ‘오이코스(Oikos)’에 있습니다. 오이코스는 ‘살림하는 집’을 뜻합니다. 이 생태계는 하나님의 살림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살림(economy)이 살림(saving)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홀로’로 만드시지 않고 ‘서로’로 만드셨습니다. 홀로가 아니라 서로로 만드셨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의 덕분에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한 숟가락 흙 속에 미생물이 1억 5천 마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밥 한톨 속에 우주가 담겨 있다고 시인은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밥 한

톨 속에도 하늘과 땅과 사람이 들어 있음을 안다면 어찌 감히 밥을 함부로 먹고 함부로 버릴 수 있겠습니까? 흙 속에 무수한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어찌 땅을 함부로 파헤치고 땅 속에 농약을 뿌릴 수 있을까요? 많은 생명들을 돌보고, 가꾸고, 아낄 때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5.

프란츠 알트의 <생태주의자 예수>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 우주 공간에서 우리의 별 지구는 다른 별 하나를 만난다. 그 별이 지구에게 묻는다. “너 잘 지내니?” 우리의 별은 이렇게 대답한다. “그렇지 못해. 나는 호모 사피엔스를 태우고 다니거든.” 그러자 그 낯선 별이 지구를 이렇게 위로해 주었다고 한다. “까짓것, 신경쓰지마. 금방 사라질거야.”

인간이 이 지구에서 금방 사라진다는 섬뜩한 내용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올라 타 있는 나무의 가지를 스스로 자르고 있으면서 전혀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사는 듯 합니다. 우리는 사순절 셋째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가 걸어가신 길이 어떤 길이었나를 깊이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가장 작은 자에게 다가 가셨습니다. 가장 작은 이들의 삶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이들의 삶을 자유케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보살피고 평화의 세상을 열기 위해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편한 길을 일부러 거부하시고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해 힘든 길을 선택하신 것이죠. 어쩌면 이 시대의 가장 작은 이들은 생태계의 작은 이웃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그들 덕분에 지금 이 생명의 별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생명체들이 우리들 때문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상처 입은 이웃들과 연대하지 않고는 십자가를 말할 수 없습니다. 상처 입고 있는 이 생태계야말로 우리 인간과 오랜 시간 함께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들을 돌보는 길이 바로 예수의 길. 인 것이죠.

교회는 세상과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북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북소리에 따라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풍요와 계발, 소비 그리고 경쟁을 조장하는 북소리가 아니라, 상생과 평화 절제의 북소리를 따라 걷는 이들이다. 세상은 좀 더 많이 소유하고 좀 더 많이 소비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몰아갑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는 소비가 미덕이고 개발이

방법입니다. 사람들 속에 있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많이 먹어야 하고 더 많이 소비해야만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덜 먹고, 덜 가지고, 더 많이 나누고, 덜 쓰고 불편하더라도 행복한 길이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덕분에 살아가는 삶이라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내 밥상에 올라온 밥 한그릇을 위해 수 없이 많은 농부들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사과 하나를 만들기 위해 벌들은 봄부터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한 잔의 커피를 만들기 위해 콜롬비아 커피 농장의 농부들의 수 많은 땀방울이 있었던 것이구요.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던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서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덕분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기를 선물로 주는 방식의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나의 욕망을 위해 다른 존재들을 이용하는 방식은 평화를 깨뜨릴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모든 것이 덕분에 얻은 것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주위의 모든 생명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돌보며 아끼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나눔>

창조주를 믿는다는 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보살피고 돌보는 삶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어떤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보호하고 돌보시겠습니까? 구체적인 실천 가능한 적용들을 나눠보세요.